



사진제공 경향신문

광부일기 1

검게 벌린 아가리 속으로
꾸역꾸역 밀려들어가
카바이트 칸데라 불빛
벤또 뚜껑 물 한 모금에
가족들 얼굴 떠올리고

- 시 이상훈